

브라질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배경과 시사점: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박미숙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선임연구원 (misookp@kiep.go.kr, 044-414-1105)



차 례

1. 미국-브라질 통상 갈등에 따른 브라질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2. MERCOSUR-EU 임시무역협정(iTA) 발효 및 주요 내용
3. MERCOSUR-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및 주요 의제
4.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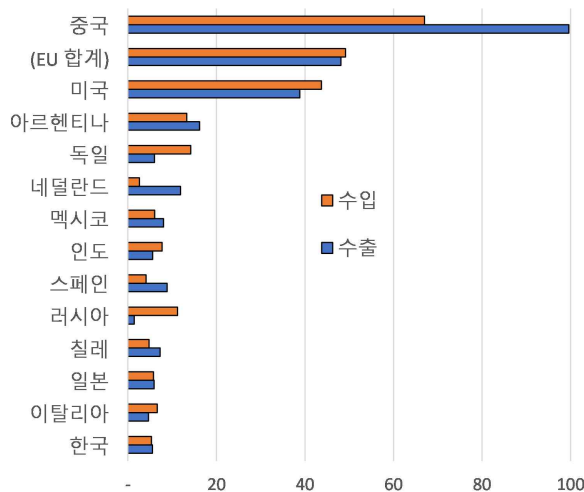
- ▶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라질은 통상 전략을 개방적으로 전환하여 MERCOSUR(남미공동시장) 차원에서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미국이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 추이는 10%(2025. 4. 2.)→10%+40%(2025. 7. 30.)→10%(2026. 2. 24.)→25%(2026. 7. 22.)
 - 미국의 통상 압박 배경에는 △ 중남미 최대 경제이자 BRICS+ 핵심국인 브라질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행보와 △ 친트럼프 인사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브라질은 MERCOSUR의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로, 그간의 폐쇄적인 통상정책에서 선회하여 EU와 무역 협상 타결·발효, 일본과 협상 개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상 타결, 캐나다·아랍에미리트와 협상 개시 등 무역협정 진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
- ▶ 2026년 5월 1일 MERCOSUR-EU 임시무역협정(iTA) 발효 및 주요 내용
 - MERCOSUR는 EU와 △ 무역, △ 정치 대화, △ 협력을 축으로 하는 파트너십 협정을 2024년 12월 타결하였고,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무역'에 관한 협정만을 iTA로 분리하여 발효함.
 - MERCOSUR는 15년 이내에 상품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는 15~30년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브라질은 정부조달·핵심 광물에서 산업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에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함.
- ▶ 2026년 6월 30일 MERCOSUR-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및 주요 의제
 - 양국 정부 및 일본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EP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브라질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일본은 자동차·부품 수출과 핵심 광물의 중국에 대한 의존 완화를 기대함.
- ▶ 한국과 브라질은 2026년 2월 정상회담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확인한바, 브라질의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제조업 재활성화'와 '핵심광물 산업화' 등을 협상의 핵심 의제로 삼는 한편,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음.

1. 미국-브라질 통상 갈등에 따른 브라질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브라질의 2위 교역 상대국이자 1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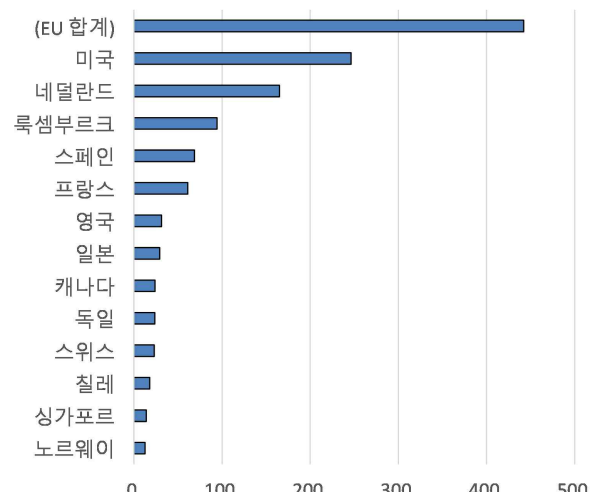
- 브라질은 2023~25년 대(對)미국 교역에서 연평균 수출액 약 388억 달러와 연평균 수입액 약 437억 달러를 기록하여, 약 49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겪음.¹⁾
- 브라질에 유입되는 FDI는 2023~24년 연평균 약 9,512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은 2,463억 달러(26%)를 투자하여, 개별 국가로서는 최대 투자국임.²⁾

그림 1. 브라질의 수출입 상대국(2023~25년 평균)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ITS(검색일: 2026. 7. 2.).

그림 2. 브라질에 대한 FDI 투자국(2023~24년 평균)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브라질중앙은행(검색일: 2026. 7. 2.).

■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브라질에 세계 최고 수준의 50% 관세를 부과했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자, 2026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10%(2025. 4. 2.)→10%+40%(2025. 7. 30.)→10%(2026. 2. 24.)→25%(2026. 7. 22.)³⁾
- [2025. 7. 30.]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하여 브라질에 10%의 상호 관세 외에 40%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당시 브라질은 50%라는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음.⁴⁾
 - 브라질이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겪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경제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 미국 기업의 표현의 자유 침해(브라질 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제재), △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재판, △ 법치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함.⁵⁾

1) WITS 통계(검색일: 2026. 7. 2.).

2) Banco Central do Brasil(2026. 6. 26.), "Estatísticas do setor externo."

3) ReedSmith, "Trump 2.0 tariff tracker";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4) The White House(2025. 7. 30.),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5) Poder360(2025. 7. 9.), "Carta Trump Brasil."

-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한 시점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10~41%였기 때문에, 브라질에 부과한 50%는 최고 수준임.⁶⁾
- 그러나 미국이 지급할 수 없는 원자재·농산물이나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제외되었는데, 해당 제품은 농산물(오렌지·오렌지주스 등), 광물(철광석·주석광 등), 에너지(원유·천연가스 등), 항공기 및 부품 등임.
- [2026. 2. 24.] 미국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의 관세가 종료되고 브라질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가 적용됨.⁷⁾
- [2026. 7. 22.]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브라질에서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2026. 6. 1.)하였고, 이에 따라 7월 22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함.⁸⁾
 - USTR이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라 판단한 사례는 △ 미국 전자결제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 △ 멕시코·인도에 특혜관세를 제공하여 미국기업에 불이익 제공, △ 반부패 법 집행 부족, △ 지적권 보호 부족, △ 에탄올 관세 부과, △ 불법 산림전용(deforestation)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이 미국산과 불공정하게 경쟁 등임.
 - 미국이 지급할 수 없거나 산업에 타격을 주는 제품은 관세에서 제외되었는데, 2025년 50% 관세에서 제외되었던 것에 비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제품은 농축산물(소고기·커피·오렌지 등), 광물(철광석·선철·알루미늄수산화물 등), 연료(원유·천연가스 등), 의약품, 산업자재, 항공기 및 부품 등임.⁹⁾

■ 미국의 통상 압박 배경에는 △ 중남미 최대 경제이자 BRICS+ 핵심국인 브라질의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적 행보와 △ 친트럼프 인사인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5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미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¹⁰⁾
 - 트럼프 대통령은 BRICS+ 회원국의 자국 통화 결제 확대와 새로운 통화 창설 시도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BRICS+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함.¹¹⁾
-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아르헨티나(밀레이 정부) 및 엘살바도르(부켈레 정부)와 같이 이념적으로 가까운 중남미 우파 정부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친트럼프 인사이자 브라질 우파의 상징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2년)의 형사처벌을 우방 세력 탄압으로 인식해 룰라 정부를 압박함.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와 상호무역협정 체결을 합의

6) The White House(2025. 7. 31.),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7) The White House(2026. 2. 20.),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a Temporary Import Duty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 Problems.”

8) USTR(2026. 6 1.), “USTR Section 301 Determination on Brazil’s Unreasonabl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USTR(2026. 7. 15.), “USTR Section 301 Action on Brazil’s Unreasonabl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9) Forbes(2026. 7. 16.), “EUA Ampliam Lista de Isenções e Retiram Mais de 2.100 Produtos Brasileiros do Tarifaço”(검색일: 2026. 7. 20.).

10) CNN(2025. 7. 10.), “Trump is threatening tariffs on a Beijing-backed group. What’s got him so worried?”

11) 위의 자료: Time(2025. 7. 8.), “Trump Threatens Extra 10% Tariff for Countries ‘Aligning’ Themselves With ‘Anti-American’ BRICS Policies.”

하였고, 2026년 1~3월 사이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26년 3월에는 16개 우파 국가와 안보 협의체인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Americas Counter Cartel Coalition)'을 출범시킴.¹²⁾

■ 브라질은 미국과의 통상 갈등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해, 통상 전략을 개방적으로 전환하여 MERCOSUR(남미공동시장) 차원에서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룰라 대통령(2023. 1.~현재)은 통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MERCOSUR의 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EU와 25년 만에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발효하였으며, 2026년 6월에는 일본과 EPA 협상을 개시함.
 - 그간 MERCOSUR가 소규모 경제와 FTA를 발효하거나 PTA로 개방 범위를 최소화했던 데 반해, EU 및 일본과 무역협정은 대규모 경제권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음.
 - 이 외에도 룰라 대통령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타결, 캐나다 및 아랍에미리트와 FTA 협상 개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PTA 협상 준비, 인도와 PTA 개선을 위한 협상 준비 등을 진행함.
- 브라질은 MERCOSUR 회원국이기 때문에 양자 협정이 아닌 MERCOSUR 차원에서 역외 국가와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MERCOSUR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통상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브라질 및 MERCOSUR는 그간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미온적이었음.
 - MERCOSUR는 역외국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하지만 예외 품목이 많아 회원국별 평균 관세율이 다른데, 브라질의 수입 관세율은 단순평균으로 12.0%이고 무역량 가중평균으로 9.3%임.¹³⁾
 - MERCOSUR가 발효한 협정은 인도와의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처럼 개방 수준이 낮거나, 이집트·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의 FTA처럼 규모가 작은 경제와의 협정이었음.

표 1. 브라질(MERCOSUR)의 무역협정 현황

현황	대상국 및 협정
발효(발효일)	인도 PTA(2009. 6. 1.), 이집트 FTA(2017. 9. 1.), 이스라엘 FTA(2010. 4. 28.), 팔레스타인 FTA(2025. 4. 11.), EU iTA 잠정 발효(2026. 5. 1.)
타결(타결일)	싱가포르 FTA(2023. 12. 7.), EFTA FTA(2025. 9. 16.)
협상 중	캐나다 FTA(2024. 10. 10. 재개), 아랍에미리트 FTA(2024. 7. 2. 개시), 한국 TA(2021. 9. 3. 7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 미개최)
협상 준비	베트남 PTA, 인도네시아 PTA, 인도 PTA 개선

자료: Governo Federal, "Acordos comerciais."

12) USTR(2025. 11. 13.),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Frameworks for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 with El Salvador, Argentina, Ecuador, and Guatemala"; The White House(2026. 3. 7.), "COMMITMENT TO COUNTERING CARTEL CRIMINAL ACTIVITY"; 16개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이며 브라질과 멕시코는 제외됨.

13) WTO, "Tariff and Trade Data"(검색일: 2026. 7. 2.).

2. MERCOSUR-EU 임시무역협정(iTA) 발효 및 주요 내용

■ 개별국으로는 미국 및 중국이 브라질의 교역이나 투자에서 주요 상대국이지만, EU 회원국 전체를 합산하면 EU가 브라질의 2위 교역 상대이자 1위의 해외직접투자자임.

- EU는 중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수출입을 많이 하는 대상이고(그림 1 참고), EU 회원국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FDI 총액은 브라질 전체 FDI 유입액의 약 46%를 차지하여 미국(26%)의 투자를 크게 넘어섬(그림 2 참고).¹⁴⁾
 - 2023~25년 브라질의 평균 수출은 대중국 약 996억 달러, 대EU 약 481억 달러, 대미국 약 388억 달러였고, 평균 수입은 대중국 약 670억 달러, 대EU 약 492억 달러, 대미국 약 437억 달러를 기록함.
 - 2023~24년 브라질에 유입된 FDI 금액은 약 9,512억 달러로, EU가 투자한 금액이 4,421억 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이 투자한 금액이 2,463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음.

■ 2026년 5월 1일 ‘MERCOSUR-EU 파트너십 협정(PA: Partnership Agreement)’ 중 무역에 관한 협정인 ‘임시무역협정(iTA: interim Trade Agreement)’이 발효됨.

- MERCOSUR와 EU는 △ 무역, △ 정치대화, △ 협력이라는 세 축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십 협정(PA)을 2024년 12월에 타결하였는데, 신속한 발효를 위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임시무역협정(iTA)으로 분리하였고, 2026년 5월 1일부터 발효시킴.¹⁵⁾
 - PA는 포괄적 협정이어서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iTA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발효 가능하기에, iTA는 2026년 1월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5월 1일부터 발효됨.¹⁶⁾
 - PA도 별도의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데, 추후 PA가 EU 모든 회원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발효되면 iTA는 PA로 통합됨.
- 그러나 프랑스·폴란드·아일랜드 등 농업 국가가 협정 발효를 반대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유럽의회는 iTA 및 PA가 EU 조약을 위배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판결해달라고 회부함. CJEU 판결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위배’라고 판결되면 현재 발효 중인 iTA의 수정 및 재협상이 불가피함.¹⁷⁾
- EU와 달리 MERCOSUR 각 회원국 의회는 높은 지지로 iTA를 신속히 비준하였는데, 이를 통해 MERCOSUR 측의 iTA 발효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14) WITS(검색일: 2026. 7. 2.); 브라질중앙은행(검색일: 2026. 7. 2.).

15) European Commission, “EU-MERCOSUR agreement.”

16) Politico(2026. 1.), “EU countries approve Mercosur trade deal after 25 years of talks.”

17) White & Case(2026. 3. 10.), “EU to provisionally apply EU-Mercosur Interim Trade Agreement pending CJEU opinion.”

표 2. MERCOSUR-EU 임시무역협정(iTA)의 발효 절차

협정 당사자(비준 연월)		비준 절차	발효일
EU(2026. 1.)		EU 이사회 승인(프랑스·폴란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헝가리 반대) ※EU 의회가 iTA·PA의 EU 규정 위배 여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	2026. 5. 1.
MER CO SUR	브라질(2026. 3.)	하원 가결 → 상원 81명 전원 찬성	
	아르헨티나(2026. 2.)	하원 203명 찬성, 42명 반대 → 상원 69명 찬성, 3명 반대	
	우루과이(2026. 2.)	상원 31명 전원 찬성 → 하원 91명 찬성, 2명 반대	
	파라과이(2026. 3.)	상원 38명 전원 찬성 → 하원 57명 전원 찬성	

자료: MercoPress(2026. 2. 26.), “Uruguay and Argentina ratify the EU-Mercosur deal, leaving entry into force to Brussels”; Senado Noticias(2026. 3. 4.), “Por unanimidade, Senado aprova acordo entre Mercosul e União Europeia
Fonte: Agência Senado.”

- [관세] EU는 10년 이내에 그리고 MERCOSUR는 15년 이내에 상품 관세를 철폐하고, 개방에 민감한 MERCOSUR 자동차 시장과 EU 농축산물 시장은 단계적 및 제한적으로 개방함.
 - MERCOSUR는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지역으로 15년 이내에 약 90.8% 품목 수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EU는 10년 내에 약 96.8% 품목 수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¹⁸⁾
 - iTA 발효 전 MFN 수입 관세율(단순평균)은 브라질 12.0%, 아르헨티나 11.0%, 파라과이 8.6%, 우루과이 9.0%로 MERCOSUR 회원국 전반에서 높은 수준이나, EU는 4.3%로 낮음.¹⁹⁾
 - [자동차] EU는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하지만, MERCOSUR는 차종에 따라 내연기관 15년,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18년, 수소 차량 25년, 기타 신기술 차량 30년으로 관세 철폐 기한을 길게 설정함.²⁰⁾
 - 브라질은 세계 8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MERCOSUR 회원국 전체에 자동차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완성차에 3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 왔음.²¹⁾
 - 브라질은 세단·소형 승용차에, 아르헨티나는 픽업트럭·상용차 생산에 특화되어 완성차 및 부품 모두에서 상호보완적 생산·교역 구조를 이루며, 파라과이는 조립·하청에, 우루과이는 유통·금융에 특화된.²²⁾
 - [농축산물] MERCOSUR가 세계적인 농축산물 수출 지역이기에, EU는 관세할당을 적용하여 쿼터 이내 물량에 한해서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함.
 - EU가 설정한 농축산물 쿼터는 소고기 9만 9,000톤, 돼지고기 25,000톤, 닭고기 18만 톤, 옥수수 및 수수 100만 톤 등인데, 이 쿼터는 MERCOSUR의 대EU 수출량의 1/5~1/2 수준임.²³⁾
- [광물] 브라질은 핵심 광물의 주요한 공급국이기에, 광물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도록 허용되지만, EU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50% 이상 인하하고 수출세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함.

18) MERCOSUR-EU iTA 협정문의 Annex 2-A를 참고하여 저자 계산.

19) WTO, “Tariff and Trade Data”(검색일: 2026. 7. 8.).

20) MERCOSUR-EU iTA 협정문의 Annex 2-A, pp. 6-10.

21) European Commission(2026. 1. 17.),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Mercosur partnership agreement.”

22) C.S.M. International(2026. 4. 23.), “The Mercosur Reflex: How Brazilian Auto Exports to Argentina Surged 156 Percent and What That Reveals About Regional Trade.”

23) MERCOSUR-EU iTA 협정문 Annex 2-A, pp. 22-44.; WITS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브라질은 EU가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다수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EU는 브라질이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하되, EU에는 인화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타협함.²⁴⁾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에 광범위하게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로, iTA는 MERCOSUR 회원국에 수출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요구하지만, 브라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허용함.²⁵⁾
- 브라질은 HS25~28에 속한 광물과 HS7110(백금), HS7202(합금철), HS8109(지르코늄), H8112(베릴륨, 크로뮴, 게르마늄)에 대해 필요시 수출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EU에는 다른 지역보다 50% 이상 수출세를 할인하고 수출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함.²⁶⁾

■ [정부조달]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까지 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나, MERCOSUR 회원국이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정책 수단(오프셋, 제한입찰, 중소기업 우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칭적으로 개방함.

- 정부 조달시장은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MERCOSUR 회원국에 우호적인 개방 조건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따라 개방에서 제외하는 분야나 산업정책 수단의 허용 요건이 다름.
- [개방 제외] 브라질은 통합보건시스템(SUS)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가족 농가 지원 사업, 일부 농업·건설장비, 국방·안보, 우주청, 원자력위원회 사업 등은 제외됨.²⁷⁾
- [오프셋] 정부조달 규정에서 오프셋을 금지하지만²⁸⁾, 브라질의 경우는 특정 조건하에 오프셋을 허용함.
 - 브라질이 △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오프셋을 요구하고, △ 조달 문서에 오프셋을 명기하며, △ 사전에 오프셋을 공지할 경우, 오프셋을 허용함.²⁹⁾
 - 오프셋은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국산 부품 사용 의무, 기술이전, 투자 의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브라질은 산업정책에서 이러한 요구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
- [자국 기업 우대] 브라질은 영세·소기업의 입찰가격이 높아도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고, 조달 물량의 최대 25%를 이러한 기업에 할당할 수 있으며, 혁신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등에는 제한입찰을 허용함.³⁰⁾

■ [지식재산권] EU의 348개 농축산물과 MERCOSUR의 242개 농축산물을 지리적 표시(GI)로 보호³¹⁾

- EU가 GI로 보호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MERCOSUR 내에서 명칭 사용과 상표 등록이 불가한데, EU의 보호 대상은 샴페인, 페타 치즈, 파마산 치즈, 코냑, 아이리시 위스키 등 MERCOSUR에서도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 다수여서, EU가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GI는 유리한 결과를 얻어냄.
 -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의 명칭이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임.³²⁾

24) MERCOSUR-EU iTA 협정문 Article 12.11.

25) MERCOSUR-EU iTA 협정문 Article 2.9.

26) MERCOSUR-EU iTA 협정문 Annex 2B, p. 40.

27) MERCOSUR-EU iTA 협정문 Appendix 12-C, p. 7; MERCOSUR-EU iTA 협정문 Appendix 12-C-7, p. 38.

28) MERCOSUR-EU iTA 협정문 Appendix 12-C-7, p. 38.

29) MERCOSUR-EU iTA 협정문 Appendix 12-C-7, p. 38.

30) MERCOSUR-EU iTA 협정문 Appendix 12-C-7, p. 39.

31) MERCOSUR-EU iTA 협정문 Annex 13B, 13C, 13D.

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 [환경] △ MERCOSUR 회원국의 산림전용(deforestation) 방지, △ 지속가능한 방식의 제품 생산, △ 브라질 산업정책이 주력하는 친환경 산업에서 협력 등을 제시함.

- 아마존 열대우림 손실은 국제적인 이슈이고, 유럽은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시행해 산림전용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 지역은 산림전용 방지에서 협력하고, EU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MERCOSUR 제품에 추가적인 시장접근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³³⁾
- 친환경 산업에서 협력을 제안하는데, 이는 △ 핵심 광물, △ 재생에너지, △ 친환경 운송수단 공급망, △ 바이오연료, △ 수소로, 브라질이 산업정책에서도 중점을 두는 분야와 일치함.³⁴⁾

표 3. MERCOSUR-EU 임시무역협정(ITA)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관세	자동차	·[MERCOSUR] 협정 발효 후 내연기관 15년,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18년, 수소 차량 25년, 신기술차량 30년 차에 관세 철폐 ·[EU] 10년 내 관세 철폐
	농축산물	·[EU]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옥수수·쌀·에탄올 등 MERCOSUR 주력 수출품에 관세할당
	일반 상품	·[EU] 10년 내 96.8% 품목 수의 관세 철폐 ·[MERCOSUR] 15년 내 90.8% 품목 수의 관세 철폐
원자재 수출세		·[브라질] 광물 수출 시 수출세 부과 가능, EU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50% 이상 수출세 인하, EU에 적용하는 수출세율 상한은 25%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수출세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정부조달		·양 지역 정부조달 시장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까지 비차별적으로 개방 ·[브라질] 자국 기업과 중소기업에 특혜 허용, 오프셋(국산 부품 사용 의무, 기술이전 의무, 투자 요구 등) 허용, 보건·학교급식·아마존 관련 사업은 개방에서 제외
지식재산권		·EU의 348개 농축산물과 MERCOSUR의 242개 농축산물을 지리적 표시(GI)로 보호
환경		·파리협약 준수, 불법 벌목 근절, MERCOSUR의 'EU 산림전용 방지규정(EUDR)' 준수에 협력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 바이오연료, 수소 분야에서 지역 간 이니셔티브 추진
서비스 및 투자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나 광업·농업·기타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개방

자료: MERCOSUR-EU iTA 협정문; 박미숙, 손은아(2026), pp. 72~79.

3. MERCOSUR-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및 주요 의제

■ 료라 대통령이 2025년 3월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제안하였고, 2026년 6월 30일 EPA 협상을 개시함.³⁵⁾

- 양국은 2026년 두 차례의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고, 2026년 6월 30일 MERCOSUR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함.

33) MERCOSUR-EU iTA 협정문 Annex 18-A, p. 13, p. 20.

34) MERCOSUR-EU iTA 협정문 Annex 18-A, pp. 17-18.

35) MERCOSUL(2026. 6. 30.), "Lançamento de Negociações para um Acordo de Parceria Econômica entre os Estados Partes do MERCOSUL e o Japão"; Pder 360(2025. 3. 26.), "Lula quer lançar parceria entre Japão e Mercosul ainda em 2025."

■ 일본은 브라질의 11위 교역국이자 7위 외국인직접투자국이며, 브라질은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이주한 국가이자 일본 ODA의 주요 수혜국임.

-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계 인구는 브라질 200만 명(1위), 미국 155만 명(2위), 캐나다 13만 명(3위) 순으로 집계됨.³⁶⁾
- 브라질의 대일본 교역액은 2023~25년 연평균 약 117억 달러(11위)이고, 일본의 대브라질 FDI 금액은 2023~24년 연평균 약 290억 달러(7위)임.³⁷⁾
 - [교역] 일본의 대브라질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유기 화합물, 철강제품, 자동차 등이고, 수입품은 철강, 닭고기, 옥수수, 커피, 알루미늄 등임.³⁸⁾
 - 투자기업은 자동차 및 부품(Toyota, Honda, Nissan 등), 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상사(Mitsui&Co, Mitsubishi, Sumimoto 등), 전자제품(Canon, Casio, Fusitsu 등) 등 분야의 기업임.³⁹⁾
- 브라질은 일본 원조의 주요 수혜국으로, 브라질은 1970년대까지 대두 수출이 없었으나, 일본원조기구 JICA의 지원으로 세하두(Cerrado) 열대 사바나에 대두를 경작하면서 세계 1위 대두 수출국으로 변모함.⁴⁰⁾

■ 브라질 및 MERCOSUR는 EPA 체결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산업 협력을 기대함.

- [농축산물] 브라질 외교부는 일본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시장 개방이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세 인하와 더불어 일본의 위생·검역(SPS)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⁴¹⁾
- [산업협력] 핵심 광물의 산업화, 전기차, 탈탄소, 산업 자동화, 바이오에너지, 보건 등에서 기술이전 및 산업 부문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일본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 2025-2030'을 채택하여, EPA 협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함.⁴²⁾
 - 정부 간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 순환경제, △ 디지털 전환, △ 탄소배출권 시장 및 탄소 포집, △ 그린모빌리티, △ 바이오 경제, △ 첨단제조, △ 목초지 복원, △ 디지털 보건 등임.

■ 일본은 남미 최대 시장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 확대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 완화를 기대함.⁴³⁾

- [자동차] MERCOSUR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EPA를 통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광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 안보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로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함.

36) Brilliant Map(2025. 10. 27.), "Japanese Diaspora & Immigrants By Country."

37) WITS(검색일: 2026. 7. 2.); 브라질중앙은행(검색일: 2026. 7. 2.).

38) 일본외교부, 「브라질連邦共和国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基礎データ」.

39) 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 Japonesa do Brasil, "Associados."

40) JICA(2011. 1. 8.), "Transformed Brazil as a Large Agricultural Country."

41) Brasil247(2026. 6. 29.), "Brasil vê acordo Mercosul-Japão como forma de equilibrar relações comerciais e reforçar autonomia."

42) CompreRural(2026. 6. 3.), "Acordo entre Mercosul e Japão deve impulsionar cerca de 18,4% das exportações do agro brasileiro"; InfoMoney(2025. 3. 27.), "Na visita de Lula, Brasil e Japão assinam 10 acordos de cooperação: confira a lista"

43) Boletim do Poder(2026. 6. 16.), "Japão propõe acordo de livre comércio com Mercosul e França oferece supercomputadores ao Brasi."

표 4. EPA 체결에서 브라질과 일본의 관심 분야

분야	브라질의 관심	일본의 관심
자동차 및 부품	-	MERCOSUR로 수출 확대
농축산물	일본으로 쇠고기·돼지고기 수출 확대	-
광물	정련 및 가공 등 부가가치화, 기술이전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친환경 연료·운송	바이오 연료 및 그린수소 사용 확대	안정적인 바이오연료 확보 및 기술 적용
기후변화·산림복원	아마존 보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아시아 최초로 아마존 기금 기여, 탄소시장 관련 기술·규범에서 영향력 확대
디지털 전환	자연재해 관리, 디지털 인프라 개발, 차세대 전송 시스템 적용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규제 정합성 확보
보건·의료	디지털 보건,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브라질 보건·의료 시장 진출
농업 및 축산	목초지 복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처 확보

자료: 브라질-일본 정상회담(2025. 3.) 및 브라질 언론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EPA 협상 개시에는 일본 및 브라질 산업계의 의견도 반영된바, 일본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와 브라질 산업연맹(CNI)이 주축이 되어 EPA 체결을 양국 정부에 요구함.

- 일본과 브라질 산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Keidanren과 CNI는 양국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브라질-일본 비즈니스 협의회(Cebraj)’를 1974년 설립하여 양국의 주요 산업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MERCOSUR-일본 간 EPA 추진 필요성을 양국 정부에 전달함.⁴⁴⁾
- CNI는 광물 및 곡물에 집중되어 있는 브라질의 대일본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양국 간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자 함.⁴⁵⁾
- Keidanren은 일본이 MERCOSUR 시장에서 EU나 한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일본 경제의 에너지 전환·식량공급 안정·디지털 전환 등을 위해 EP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⁴⁶⁾

44) agência de notícias da indústria(2025. 8. 9.), “CNI lidera diálogo estratégico com Japão para ampliar comércio entre Mercosul e Ásia.”

45) agência de notícias da indústria(2021. 10. 11.), “Por que é importante avançar no Acordo de Parceria Econômica Japão-Mercosul?”

46) 일본외교부(2023. 11. 29.), 「日本メルコスールEPAの早期実現を求める, シンポジウムを終えての声明」; Keidanren(2025. 3. 26.), 「日本ブラジル外交関係樹立130周年を機に、今こそ日本メルコスールEPAの早期実現を求める共同声明」.

4. 시사점

- EU와의 iTA는 무역 장벽이 높은 브라질이 대규모 경제에 시장을 개방한 첫 협정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브라질은 정부조달·핵심 광물에서 산업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에서 협력의 기회로 활용함.
- 일본과의 EPA를 통해 브라질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자동차 수출 확대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 산업계의 지속적인 교류가 협상 개시에 기여함.
- 한국은 MERCOSUR와 TA(Trade Agreement) 협상을 2018년 시작하였고 2021년 7차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2026년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협상 재추진 의사를 확인함.⁴⁷⁾
 -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경제이지만 무역 장벽이 높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한 지역임.
 - 서울에서 개최한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양국 정상은 TA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함.
- 브라질은 EU 및 일본과의 협정에서 산업협력을 핵심 의제로 다룬바, 브라질 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어 온 ‘제조업 재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한-MERCOSUR TA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면, TA의 협상 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의 성향에 따라 MERCOSUR의 협상 추진 속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며, 2026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MERCOSUR 차원의 협상 추진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보우소나루 전 정부(2019~22년)는 MERCOSUR의 느슨한 통합을 선호하여 다른 회원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외공동관세를 인하하기도 했지만, 룰라 정부(2023년~현재)는 MERCOSUR의 결속을 중시하여 회원국의 개별적 통상협정을 비판하고 MERCOSUR 차원의 협정과 시장개방에 속도를 높임.⁴⁸⁾
 - 차기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과 플라비우(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되는데, 플라비우 후보는 MERCOSUR 규정을 완화하여 브라질이 미국과 양자 무역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⁴⁹⁾
 - 브라질 제조업의 지속적 축소는, 좌파 정부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우파 정부 시기 산업계·학계의 문제 제기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 왔으나, 정권의 정책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은 분명함.⁵⁰⁾

47)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2026. 2. 24.), 「한-브라질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포괄적 협력 확대」.

48) Gazeta do Povo(2021. 12. 17.), “Bolsonaro lamenta falta de acordo sobre tarifa comum em reunião do Mercosul”; ECO(2026. 6. 29.), “Brasil critica iniciativas unilaterais no Mercosul e pede definição sobre futuro do bloco.”

49) Revista Oeste(2026. 7. 2.), “Flavio envia aos EUA plano para ampliar comercio bilateral e flexibilizar Mercosul.”

50) Rebeiro&Borges(2026), “A trajetória da política industrial brasileira de 2003 a 2024: novo-desenvolvimentismo, ultraneoliberalismo e neoindustrialização.”

- 따라서 제조업 재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협정의 주요 의제로 삼는다면, 브라질 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협상 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U와의 iTA는 브라질의 산업정책 자율성(정부조달·광물 수출세)을 보장하는 대신 EU에 우대 세율 등 반대급부를 확보한 것처럼, 한국과의 TA도 브라질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MERCOSUR 시장에서 한국이 EU 및 일본과 동등한 시장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TA를 체결함과 동시에,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분야 및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음.

- EU·일본·한국이 MERCOSUR로 수출하는 품목이 유사하므로, 한국 제품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함.
- 브라질은 핵심 광물·바이오 연료·생물다양성 등 풍부한 자원을 산업화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한국은 브라질 정부의 산업정책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2026년 2월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약속한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협정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 공급망, △ 금융, △ 농업 기술, △ 보건의료 및 규제, △ 중소기업 및 창업, △ 과학기술, △ 치안 등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함.
- 특히 핵심 광물 및 희토류 분야에서 브라질의 핵심 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 및 일본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음.
 - 브라질 광업에너지부(MME)는 화학적 정련·산화물 분리·첨단자성소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국가전략을 수립 중임.⁵¹⁾
 - 브라질이 산업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내 배터리 산업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바탕으로 ‘자원 → 정련 → 소재’의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EU 및 일본에 비해 강점을 지님.
- 일본 Keidanren과 브라질 CNI 간 교류처럼, 양국 산업계의 교류가 협상 진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

51) Cenário Energia(2026. 5. 19.), “MME articula política nacional de terras raras para transformar Brasil em polo industrial da transição energética.”